

- 본문 : 이사야 7장 10~14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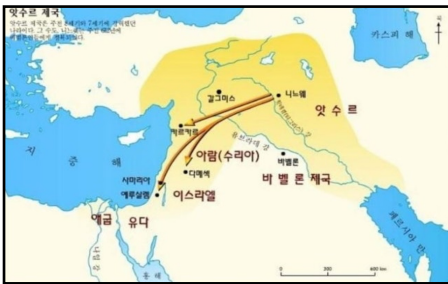
- 제목 : “현실 이성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 본문 읽기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마음의 문을 열며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은 위태로운 일들이 언제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위기 상황을 맞을 때 신앙인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아하스가 민족적인 흥망성쇠의 갈림길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사7:3) 서서 “현실 이성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고민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분주하고 다급하게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현실 이성이나, 하나님 말씀이나”를 고민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려면 한 번쯤 경험했을 당신의 경험이 본보기가 될 만한 정모델이든 반면교사가 될 만한 역모델이든 상관없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본문 이해를 위해 몇 가지 관찰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 (1) 왼쪽의 지도를 보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사7:1, 왕하16:5, 대하28:5a)
- (2)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처한 다급한 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사7:2, 사7:5~6, 왕하16:6, 대하28:5~8)
- (3)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7:4,7,9)
- (4) 아하스 왕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왕하16:7~8, 대하28:16, 사7:12)

2.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자신들의 처한 불과 같이 삼키는 현실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 현실 이성과 하나님 말씀 중에서 현실 이성의 지시를 따라서 앗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하스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 일까요? (사7:2, 사7:3, 왕하16:1~4, 왕하16:8, 대하28:2)
3. 이와 같이 현실 이성의 지시를 받는 아하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어느 정도 었습니까? (사7:11a, 11b, 13a)
4. 다급한 상황에서 현실 이성을 따라 앗수르의 도움을 받았던 아하스 왕과 그의 후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하22:19~21, 사36:2)

·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다급한 상황에서 현실 이성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7장에는 반면교사로서 아하스의 현실 이성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지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 앞에 세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형으로 이사야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하스입니까? 이사야입니까? ‘현실의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돌하는 “현실 이성”을 버리고,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결심할 때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구체적인 적용은 무엇입니까?

· 말씀기도제목

1. “현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불과 같이 삼키는 세상의 다급함 속에서 “현실 이성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신앙인의 기로에서 “깨어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2. 말씀이 비현실적인 대책으로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앙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사랑방에서 나눌 때 “더욱 깨어 있는 믿음”으로 “말씀이 삶의 능력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